화순 서성제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속도'

내년 전남도 신규 사업 선정… 도비 25억 원 확보
오는 2025년까지 수변 산책로 · 출렁다리 등 설치

화순군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서성제(환산정) 주변 관광자원화사업'이 전라남도 관광자원화 신규 사업에 선정돼 도비 25억 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서성제(환산정) 주변 관광자원화사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50억 원(도비 25억, 군비 25억)을 투입해 수변 산책로, 전망대, 출렁다리, 야간조명 등을 설치, 관광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군은 2021년 수립한 기본계획을 토대로 전라남도에 관광자원화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전에 기본 ·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는 등 적극적인 추진 의지로 2023년 신규 사업에 선정, 도비를 확보했다.

관광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아름다운 호수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지역 관광명소로 자리 잡아 관광객 유치와 민박, 농산물 판매 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사업이 어렵게 선정된 만큼 충실히 이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는 민자 유치를 통한 체험형 관광지로 확대 개발할 수 있는 방안도 구상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산정은 1637년 백천 류함 선생이 창건한 정자로 2007년 1월 5일 화순군의 향토문화유산 제35호로 지정됐으며, 호남 3대 적벽(화순적벽, 물염적벽, 서암적벽) 중 하나인 동면 서성리 서암적벽을 배경으로 한 산수화 같은 풍광을 보여주는 매력적인 관광 자원이다.

/화순=주용현 기자

사진은 화순 서성제 주변 관광자원화사업 사업계획도.

무안, 최첨단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

초당대 · 목포대 등 2곳 시범 운영… 와이파이 · 충전 가능

무안군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교통안전과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해 최첨단 '스마트 버스승강장'을 설치했다.

무안군은 '스마트 버스승강장'을 목포대학교 도림캠퍼스 건너편에 설치해 지난달 30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지난 5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한 승 · 하차와 더불어 미세먼지로부터 안심하고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초당대학교에 '스마트 버스승강장'을 시범 설치했다.

군에서 설치한 '스마트 버스승강장'은 냉 · 난방기와 실외기, 공조시스템 등 각종 스마트 설비를 일체형 모듈에 통합한 디자인으로 개방감을 극대화함으로써 자연감시가 용이하게 했다.

설계단계부터 각종 스마트 설비를 버스승강장에 내에 통합 설치해 전선이나 틈새 공간의 노출없이 마감돼 다른 도시의 스마트 버스승강장과의 차별화에 나섰다. 또 승객과 보행자의 다양한 행동 패턴을 고려해 밀폐공간과 개방공간이 함께 있는 버스승강장을 채택했다.

김산 군수는 "더위와 추위,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휴대폰 와이파이 구축 및 충전 등 통신편의와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추가 설치해 청년도시 스마트 무안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박태언 기자

목포, 전남 배달앱 '먹깨비' 활성화 나서

밀집지역 현수막 게첨 · 전단지 3만장 배부 등

목포시가 출시 100일을 맞은 전라남도 민간 협력형 공공배달앱인 '먹깨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소상공인 · 자영업자는 영업 이익, 소비자는 착한소비'라는 비전으로 지난 7월 출시한 '먹깨비'는 민간업체인 ㈜먹깨비가 앱을 개발 · 운영하고, 가맹점은 가입비와 광고비 없이 1.5%의 저렴한 중개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앱 이용자는 쿠폰과 이벤트 등 할인혜택을 받고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소비에 동참할 수 있으며,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시는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먹깨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12월 한 달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동행정복지센터, 평화광장 음식점 밀집지역 등에 현수막 60여개를 게첨했다.

이와 함께 전단지 3만장을 23개 동행정복지센터와 외식업 목포시지부, 소상공인연합회, 소비자연맹 등에 배부하고,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가맹점을 집중 모집해 '먹깨비'의 성공적인 안착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시 홈페이지 및 SNS 등에 카드 뉴스를 게시하고, 특히 배달앱 주요 이용자인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목포=김근호 기자

담양, 감염병관리 우수기관 국무총리 기관 표창 수상

담양군은 2022년 감염병관리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2월 6일 질병관리청에서 개최한 '감염병관리 컨퍼런스'에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감염병관리 컨퍼런스'는 감염병관리분야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미래 감염병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담양군은 신종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연중 상시 방역비상체계를 유지하면서도 감염병 관리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의료기관 신고기한 준수율, 만 65세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률, 만 12세 여아 HPV 예방접종률이 타 시군보다 월등히 우수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담양군은 지난해 감염병관리 종합적 사업평가에서 만 65세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률 분야 전국 1위를 달성하는 등 지속적인 예방 접종 독려와 홍보 활동을 적극 실시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의료기관의 환자 신고 체계를 확립하고, 코로나19 동절기 추가 접종과 폐렴구균 접종 등 예방접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담양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조승채 기자

완도서 내년에 '제3회 전남 정원 페스티벌' 열린다

완도군이 '2023년 전라남도 정원 페스티벌'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고 6일 밝혔다.

'정원 페스티벌'은 전남도가 주관하며 생활 속 정원 문화 확산과 정원 산업 진흥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2023년 5월에 열릴 예정인 '제3회 정원 페스티벌'은 지난 10월 도내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후 11월 30일 개최지를 선정했다.

완도군이 선정된 배경에는 내년에 완도군에서 개최되는 전남체전과 전남장애인체전을 연계하여 추진한다는 점과 도심 속에서 정원은 물론 다도해의 절경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제3회 전남 정원 페스티벌은 접근성이 좋고 푸른 바다가 펼쳐져 휴식과 산책 이용객이 많이 찾는 완도해변공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페스티벌은 작가 정원을 비롯하여 주민들이 만드는 정원, 상가 앞을 꾸미는 정원 등 다양한 형태로 꾸며지고, 작가 정원은 페스티벌이 끝난 후에도 존치시켜 도시 경관을 개선할 계획이다.

군은 12월 중 1,2회 개최지인 무안군을 방문하여 자문을 구하고, 내년 1월에는 행사 대행사를 선정하는 등 개최 준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신우철 군수는 "정원 페스티벌을 통해 군민과 관광객이 힐링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우리 군에는 국내 최대 난대림인 완도수목원과 약산 해안치유의 숲 등이 있으므로 페스티벌 기간 동안 완도의 정원, 산림 문화를 만끽해 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완도=이두식 기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사후활용계획 수립 용역 착수

박람회 이후 순천 주도 새로운 도시발전 모델 마련 주력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가 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사후활용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박람회 관련시설의 사후활용 ▲정원 후방산업 육성 ▲정원문화 확산 ▲정원도시 도약 등 순천시 도시 발전 모델 마련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다.

2023정원박람회는 2013년에 이어 10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꾀하고 있다. 박람회장은 국가정원을 넘어 순천만습지, 도심까지 확장해 '삶 속의 정원'을 선보일 예정이며, 시대 흐름에 맞는 웰니스 콘텐츠를 대폭 보강한다. 다시 한번 전 세계에 미래도시가 나아가야 할 기준과 방향까지 제시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박람회 개최 이후 국가정원의 합리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방안을 제시하고 이번 박람회를 통해 새롭게 조성되는 어싱길, 가든스테이, 정원체험선, 리버가든, 물 위의 정원 등 핵심 시설물에 대해 체계적이면서 전문적인 사후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용역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3개 분야(시설관리 · 활용, 정원후방산업, 정원도시) 24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지원T/F도 함께 운영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정원 확장에 따른 도시 전체 공간계획의 중요성, 국가산업과의 연계성, 도시발전의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

노관규 이사장은 "국가정원이 10년 만에 대대적으로 리뉴얼되고, 박람회장의 범위가 도심까지 확장된 만큼 향후 공간 활용이 중요하다. 도시계획 · 관광 · 문화 · 산업 · 일자리까지 고려한 폭넓은 용역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지역의 자원과 시대의 흐름을 종합해 '남해안 벨트의 허브도시'와 같은 지역의 미래 모습이 담긴 혁신적인 방안이 많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순천=조순익 기자

신안 청소년참여위원회 '여가부 장관상'

신안군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지난 2일 서울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우수사례 공모 결과 정책제안과 활동 분야 모두 최우수상에 선정돼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우수사례를 발굴 · 시상하여 격려하고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추진됐으며 정책제안 분야 41개 시 · 군, 활동운영 분야 46개 시 · 군이 공모에 참여, 신안군 청소년참여위원회가 두 분야 모두 최우수사례로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을 만들고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구다.

신안군 청소년참여위원회는 2005년에 신설되어 현재 7개 중 · 고등학교 19명의 위원이 정책제안 및 지역문화체험활동, 청소년 교류활동, 바다환경 정화활동, 진로체험활동 등 다방면으로 활동 ·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2일 전라남도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에 참가하여 전라남도지사상과 교육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신안=박정래 기자

'일류순천 시민운동' 캠페인 연합단체·주민 등 900여명 참석

순천시는 6일 오전 8시부터 시민들의 출근시간에 맞춰 관내 곳곳에서 '일류순천 시민운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18개 주요 거점에서 「일류순천 시민운동본부」소속 바르게살기운동 순천시협의회 등 14개의 연합단체와 읍 · 면 · 동 주민 등 900여 명이 참석해 ▲도시미관 개선 ▲걷자! 순천 대 · 자 · 보(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시민실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홍보 문구가 담긴 현수막과 피켓을 이용해 시민운동 홍보를 전개했다.

일류순천 시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민선8기 일류순천 시민운동의 첫 활동으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도시 청결 운동과 함께 가까운 거리 걷기 및 대중교통 이용하기, 차량 2부제 참여 운동 등을 통한 교통문제 해결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추운 날씨에도 시민운동을 통해 시민들이 순천을 위해 함께 응원해주시는 만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일류 순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페인을 마친 읍 · 면 · 동 주민들은 주요 불법투기 상습구역을 청소하고, 도로변 불법 적치물을 계도하는 등 순천시 도시미관을 위한 환경정화로 활동을 마쳤다.

영광 "원전 내 고준위방폐물 저장 지역민 동의 필수"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공동건의서 국회 ·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강종만 영광군수가 원전이 소재한 지자체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 저장시설 설치를 제외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핵 발전에 사용된 연료에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남은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사용후 핵연료'를 의미한다.

영광군은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선 전국 5개 지자체로 구성된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가 6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과 관련된 공동건의서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행정협의회는 사안이 긴박한 점을 들어 대면 회의 없이 의견을 모아 건의서를 전자 우편으로 전달했다.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에 각각 상정돼 논의 중인 3개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에는 '원전부지 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행정협의회는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임시저장시설을 허용하는 것은 불평등하고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특별법안에 대한 일치된 공동 의견을 건의서에 담았다.

공동건의서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 원전 소재 기초지자체 지역대표 참여 보장', '원전 소재 기초지자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후보부지에서 제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구체적인 일정을 특별법안 명시'를 통해 사용후 핵연료의 원전 내 임시저장을 영구화하지 않을 것을 보장 요구했다.

또 '불가피한 원전부지 내 임시저장은 해당 지역 원전소재 지역 주민의 동의 절차를 거쳐 설치',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 중인 기초지자체에 대해 저장용량과 기간 등을 고려한 특별지원금 지원' 보장을 촉구했다.

행정협의회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 정책의 최우선 당사자인 원전소재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는 정책이 성공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지역의견을 특별법안에 조속히 반영해줄 것을 강조했다.

행정협의회는 원전이 소재한 영광군 · 경주시 · 기장군 · 울주군 · 울진군 등 5개 시 · 군이 참여한다.

원전정책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설립됐다.

/영광=서종민 기자

광양시의회, 초선 의원 조례 이어져

김정임 의원, 시민과의 소통 의정 홍보 조례 마련
박철수 의원, 공무원 공용차량 사고 자기부담금 지원

광양시의회 제314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정임, 박철수 의원 등 초선의원의 조례안 발의가 이어졌다. 제9대 시의회 들어 31건의 의원발의 조례 중 초선의원 발의는 21건에 달한다.

김정임 의원은 광양시의회 의정정보를 공개하고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여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광양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의정 홍보 계획 수립, 홍보사업으로 의정 소식지 발행, 의정뉴스, 홍보영상 제작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인터넷 방송,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의정 활동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다"며 "의회가 하는 일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데 힘쓰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철수 의원은 '광양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광양시와 광양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 수행 중 공용차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 할 경우 본인이 부담하던 자기부담금을 지원하는 규정을 담았다. 또한 공용차량 운행 안전교육과 보험료 지원 등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사고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박 의원은 '광양시 공용차량 보유대수는 129대으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 교통사고는 총 14건이며, 자기차량손해액의 20%의 자기부담금을 직원들이 자비로 납부하고 있다'며 '공무 중 발생한 사고인 만큼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직원들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규정을 마련했다'고 조례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광양=조순익 기자